

연중 제19주일

기도서 P. 410 B해

- 제1독서 (열왕전 19, 4-8)
- 제2독서 (에페 4, 30-5, 2)
- 복음 (요한 6, 41-52)

# 숲 정 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김봉희**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칼럼



## 생명의 빵

김종길 신부

생명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때에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고, 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토 I 10, 1, 3-4) 이는 영생을 위한 음식의 전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적 음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 6, 54).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이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성장하는 것과 똑같이 당신 현존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키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영성체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덕과 양심을 따르지 않고 악을 일삼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으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 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일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본보기입니다.> (고린토 I 10, 5-6)

<살기 위해서 먹는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살기 위해서 먹는 사회인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 사회인가? 먹기 위해서 사는 사회라면 우리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다, 군인이다, 기업인이다, 상인이다... 등등 그들 목에 울가미를 씌우고, 먹기 위해 살도록 위협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하급 공무원이다, 기판원이다. ... 등등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수 없으니, 춤 봐달라는 무리가 판을 치는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풍토를 하루 빨리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영원히 살기 위해 먹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덕과 양심을 외면하는 자들이 발 붙일 곳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부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거 무슨 소리여!』

우리는 이 민족의 총화와 민족번영을 원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승공을 할 수 있다고 믿기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신명(身命)을 바치는 일에 서슴치 않는다.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여! 멜로디와 리듬이 분명치는 않아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들의 소리다.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여! “친애하는 조국의 젊은이여 이 거룩한 성전(聖殿)에 나가라 그대여... 변절자 이광수가 대동아(大東亞) 전쟁의 사지(死地)로 젊은이들을 내모는 소리다. - “좋아졌네 좋아졌어”... “작짜작”... “우우”... 고막이 멍멍하다.

이거 또 무슨 소리여! “정교(政敎)는 분리되어야 한다” 나랏 일은 정부·여당에서만 해야한다는 논리로 해서 오늘 현실계의 소위 총화는 전국민적이 아닌 극히 일부분의 청중없는 합창소리처럼만 장내를 메운다. 국토방위도 자립경제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음을 잊지 말자.

국민이 절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민이 슬퍼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종교인들도 국민의 엄연한 일원임을 잊지 않았으면 더욱 좋겠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자신의 눈섭을 스스로 볼 수 없음을 알고 거울앞에 멧멧이 서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겠다.

백성의 질책은 한동안 견딜 수 있어도 하늘의 질책은 아무도 견딜 수 없음을 서러운 마음으로 외쳐본다.

## 숲 정 이 산책



서투른 정원사



# □ 안동 기도회 스켓취

가톨릭 농민회 경북 이사 오원춘(알골소) 형제의 울릉도 납치 폭행 사건(5월 5~21일)과 30여 경찰관들의 교구청 난입, 사목국장 정호경 신부 연행 사건(7월 27일-계속 단식 항의 중)은 또 한번 전국 교회에 커다란 충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본 교구 문정현 신부의 재수감, 광주 농민회 김규식 형제와 전북 농민회의 전동주 형제(진안) 구속 사태 등 심상찮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전격적인 종교 탄압과 폭력 행사로 돌입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주었다.

이에 지난 8월 6일 밤 8시30분 안동 교구에선 전국적인 기도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불법적인 탄압을 규탄하며 근본적인 사과와 그 시정을 강력히 추후했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김계덕 주교님 그리고 안동 교구장 두봉 주교님을 비롯하여 전국 11개 교구에서 모인 100여 명의 신부, 수녀, 150여 농민회원, 일반신도 약 300명이 성당을 꽉 메운 가운데 엄숙히 미사를 봉헌하며 그간의 경위와 성명서 발표 및 결의를 다짐했고, 미사가 끝난 11시쯤에는 격분한 농민회와 교우들의 가두시위로 안동 시가를 온통 격한 구호의 함성에 들썩이게 하고 말았다.

밤 12시경 사제들은 별도 회의를, 그리고 교우들은 철야기도에 들어갔으며, 7일부터 안동교구 사제단과 농민회원들은 무기한 농성을 발표하고 사태해결 때까지 결사적인 행동을 감행, 전 교회의 작성과 분발 그리고 성원을 빌기로 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강론을 통해 “총력안보를 부르짖는 기관의 이같은 행위는 반 총화, 오히려 옹공·친공 행위요, 반 민주적 소치”라고 개탄하시고, 교권 침해와 종교 탄압,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연행, 구속, 수감중인 모든 형제들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셨다.

(이 기도회 사건으로 또다시 8일 밤 10시 김 기, 이상복 두 신부님과 농민회원 2명, 당일 특별강연을 했던 앨베스티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이재호씨가 연행, 계속 긴박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 ◀공고▶

#### 정의·평화를 위한 모금

우리의 지속적인 사회정의 구현 활동과 민주·인권 회복 운동을 위하여 또 구축된 성직자, 농민, 민주인사, 양심수인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값진 성금과 협조를 바랍니다. 숨은 독지가를...

직접 또는 본당 신부님을 통해 교구청이나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정평위-

# — 우리들의 결의 —

우리는 전국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 사제단이 7월 17일에 발표한 「현 시국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를 자유와 진실,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견해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 이후의 사태발전에 따른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오원춘 형제에 대한 불법 납치국은, 그의 양심선언에 비추어 사실임을 믿는다. 현정권은 인간으로서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거침없이 저질러 왔고, 또 그럴 수 있는 비이성적 집단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당국은 오원춘 형제를 이용하여, 정호경 신부와 여러 형제들을 체포·두루하기 위한 사기극을 각본에 의해서 조작 연출했다는 얘기를 수 밖에 없다. 고난받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이웃 형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마땅히 사제와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다.

당국은 납치국이건, 조작사기극이건, 그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며, 그 판연자들을 색출 처단하라.

그리고 정호경 신부와 농민회 형제들을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게 하라.

우리는 그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그에 따라 닦아올 고난을 운명으로 맞이하고자 한다.

2. 7월 26일 문정현 신부에 대한 재수감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억압받고 고난받는 민중의 편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깨우침을 주기 위한 하느님의 뜻으로 우리는 절저히 받아 드리고자 한다.

또한 현 정권이 인권문제에 대해 개전의 정을 갖고 있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표독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의 민주회복, 인권회복, 인간회복은 오직 우리 민중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된다는 철저한 인식을 가져다 준 계기로 되었다.

우리는 문정현 신부 개인의 석방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김지하를 위시한 모든 양심법과 함께 석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석방은, 구속과 석방의 악순환이 아니라 이땅의 진정한 민주회복, 인권회복, 인간회복의 첫걸음으로써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문정현 신부가 감옥에 갇혀 있듯이, 우리 또한 하느님의 뜻과 인간 양심의 포로로서 갇혀 있음을 절감한다. 문정현 신부의 행적과 주장은 곧 우리들의 그것이었고, 양심과 정의의 웨침으로 하여 가야할 곳이 감옥이라면, 우리 또한 감옥으로 다함께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7월 17일에 우리들이 했던 <<권력으로부터 풀어 내려 자유케 하소서>>한 절실한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기도는 실천이며, 그 기도와 실천으로 하여 받을 핍박의 자리가 우리에게 또한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이며, 우리 또한 지켜히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이다.

1979년 8월 6일 안동에서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전국 사제단

###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한 동 암 (모이세)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⑤ 4341 군산 ③ 3032 이라 8629

뽕짝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 5943·8629)

이리경 문 화 원

원장 한 정 상



### □ 교구 평협 임시 총회를 마치고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인권분과 위원장 문정현 신부의 재 수감과 배를 같이하여 이곳 저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교회활동 탄압과 인권유린 사태에 대비, 교구 평협은 지난 8월 4일 오후 긴급 총회를 소집하고 전 본당의 총의를 모았다.

열띤 토론과 숙의 끝에 너무도 자명한, 그러나 그 어느때 보다도 굳은 각오가 서린 그야말로 전 신도를 대표하는 회장들로서의 태도와 방향을 정립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요 영원한 것 같이 복음증거도 하나, 행동도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사제단의 결의에 전적으로 관동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드림이 바로 평협의 결의를 재 친명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시라도 서슴없는 순교행위와 행동단합의 결의도 재 다짐하고... 오후 5시경 서로간의 긴밀한 유대와 일치를 언약하며 굳은 사명감을 안고 각 본당으로 다시 파견됐다.

한 마음으로 교구와 뜻을 같이 해준 모든 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수녀연합회 「9일기도」로 사제단과 일치, 성원 보내

지난 5일 오후 3시, 성체회 본원 뜰악. 교구내 각 처에서 전교하시던 수녀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오늘의 긴박한 교회사태 앞에 「수도자」라 결코 눈 감을 수 만은 없었던게다. 갑작스런 소집에도 36분이나 모여 함께 걱정하며 뜻을 모았다. 그리고는 「사제들의 결의에 참여하는 수도자의 자세」란 간결한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우리는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이 채택한 결의문을 적극 지지한다.
  2. 우리는 사제단 결의문 4항목이 성취되도록 9일기도(8월 7~15일)를 실시한다.
- 천주교 전주교구 수녀 연합회

### 감옥 가신 신부님 위해 법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요. 하늘 나라는 시원하겠죠. 예수님 요즘 우리 마음은 평정히 슬피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신부님이 또 감옥에 가셨어요. 얼마랑 아빠랑 걱정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했죠.

예수님, 우리 신부님이 성당으로 빨리 돌아 오시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좁은 감옥은 얼마나 더울겠어요. 신부님이 안계시는 성당은 쓸쓸해요. 감옥에서는 콩보리 밥만 먹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신중기도 없고 미사도 드릴 수 없다는데 예수님. 우리 신부님 꼭 찾아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신부님이 무엇을 잘못 했나요? 남의 물건을 훔쳤나요? 약한 사람을 때렸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인 일이 있나요? 참 궁금해요. 인자하신 우리 신부님과 미사를 같이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는 내일부터 여름 어린이 공부를 시작해요. 우리 신부님이 안계셔도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부님 오시면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요.

예수님, 우리 신부님을 우리 성당으로 빨리 돌아오시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아빠랑 엄마랑 동생들이랑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꼭 부탁이에요 안녕.

-파티마 주일학교 김현주(안젤라) 올림

### 요심이 (315) 김병오



사진자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우대  
**태 광 사**  
주·유류가에마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⑥ 6346

### 출장소 임원모집

세무회계 경리에 경험있는 교수 중 30~40대의 활동성 있는 임원을 구합니다.

본 지부는 본사의 시설확장에 비례하여, 지구별 담당제로 전환하며 본 지부의 업무는 세무회계 자료와 법령집, 세무사 시험문제지 및 월간지를 법인 및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부에서는 세무회계지도 및 기장업무에 관한 상담을 하여 주는 곳입니다. 본 지부의 목표달성에 달성하면 부업으로도 권장합니다.

모집 대상 지역: 전주·군산·이리  
경음·부안·고창, 남원·순창·임실지구 각각 1명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337호

### 한국 세경협회 전북지부

지부장 박도식(스페파노)  
☎ ⑥ 6604

전기·산소용접·샷다·샷시·철재  
냉난방타트·합석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 전주 광고·공업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⑥ 1585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⑥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 M<sup>c</sup>GREGOR



맥그리거

삼성물산전주대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⑥ 4451번

유 율리야나

<수시 접수>

진설! 새로이 인가된 학원

### 주 산 · 타 자 <주·야간>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새로운 타자기 완비

김계음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옆)

판인 김제 제일 경리 학원  
원장 김유근(요한) ☎ 4429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긴급공고 ▶

- 8월 16일 기도회는 준비 관계상 일시 보류합니다.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1. 전주교구 여자 수도회 모임...16일<목> 오후 3시, 장소-파티마성당  
※ 성체조배와 미사, 미사집전:
  2. 프란치스코 삼회 전북총회 제 1차 총회 및 수련...18일<토> 오후 1시~19일 오후 3시  
장소: 중앙 천주교회 강당 대상: 각 형제회원 및 3회에 뜻있는 형제·자매  
회비: 3,000원, 지참물: 기도서·성경·성가집·묵주·세면도구·담요
  3. 제 7지구 체육대회...12일<일> 오후 2시, 합일 본당에서
  4. 제 3차 신자 등창회 모임. (성심여고 23~25회)...8월 19일 오전 9시30분 전동성당  
회비: 1,000원, 준비물: 미사도구
- 문정현 신부님 주소...350-충남 홍성읍 옥암리 홍성교도소(1003번)  
많은 기도와 성원, 위문편지 부탁드립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 울 복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이 복 석  
3874

1. 꾸리아: 12일<일> 오후 2시
  2. 공소 아동교리: 13일<월>부터
  3. 중·고학생 교리: 13일<월>~18일<토>까지  
시간-오후 4시~6시 (성경·카톨릭 교리서·성가집  
지참)
  4. 성모승천(15일) 미사: 주일과 같음
  5. 성모회 정기총회: 16일<목> 오전 10시
  6. 예비자교리: 19일<일>부터 시작합니다
  7. 대전 마리아발리 참석자 전모임: 12일<일>  
10시30분 미사후 보좌신부 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181,395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사도 회장 김 설 록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3. 첫 영성체식: 공소승천 축일(15일) 오전 10시미사중  
부모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사도회 확대회의: 19일<일> 오전 11시 소양천에서,  
주역장, 반장, 각 단체회장님을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5. 축하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성령세미나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열심한 기도속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85,46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중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1. 뭉소 승천미사 안내: 오전 6시·10시(첫영성체)  
저녁 8시
  2. 신임 교리교사: 채영진 선생님 수고많으시겠습니다
  3. 주일학교 개학: 8월 26일
  4.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특별교리에 수고해 주신 1일  
교장선생님 부녀회
  5. 35사단 장병 위한 서적기증: 성바오로서원 39권  
감사합니다
  6. 본당 주일학교 보미사단 수련회: 13일 오전 8시  
고산 대아리
  7. 화요기도회: 8월 14일 저녁 8시
- 지난주 봉헌금: 18,050원 교무금: 103,60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서용현 형제백)
2. 성모승천 대축일: 15일<수> 미사 주일과 같음  
1학기 어린이 교리 시상식-10시 30분,  
어린이미사 없음
3. 봉헌금: 매주일에 빠짐없이 봉헌바랍니다  
미수된신 분은 속히 완납 바랍니다
4. 예비자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허테레사씨 지도  
매주<화> 저녁미사후-박신부님 지도
5. 환동기 상영: 매주일 공식미사 후
6. 신용협동조합: 모든 신자 조합에 가입하여 도움주고  
도움 받으실다

7. 청년회: 현양대회 대비 성가연습중  
토요일 오후 5시
  8. 견진대상자는 19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84,53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활 인 구

1. 선교주일: 10시미사 후
  2. 반장님 회의: 10시미사 후
  3. 특별고백: 14일 오후 3시~6시
  4. 대참소: 중·고생 14일 오후 2시
  5. 수요기도회: 8월 15일 오후 8시
  6.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주일미사와 같음
  7. 감사: 주일학교·중·고 학기교리
  8. 7월말 결산보고  
총수입: 4,930,938원, 총지출: 4,768,129원  
잔 액: 162,809원
- 지난주 봉헌금: 82,33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첫영성체 준비교리: 매일 오전 8시30분,  
국민학교 2학년 이상
  3. 제대 후면 십자가(200,000원) 회사: 방지거 3회
  4. 중·고 예비자 교리: 공식미사 후  
많은 예비자 인도바랍니다
  5. 바자회 개최: 8월 27일부터 ~29일
- 지난주 봉헌금: 111,57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범  
보좌 신부 김 기 석  
사도 회장 유 수 중

- ※ 축! 성모 뭉소승천 대축일  
미사안내: 오전-5시반, 8시반, 10시  
오후-8시
1. 자모회: 10시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3. 성화회: 10시미사 후
  4. 성가정회: 월(오후 2시)
  5. 사도회: 10시미사 후
  6. 첫 영성체: 19일
- 지난주 봉헌금: 247,337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 ※ 문정현 신부님은 지금 충남 홍성교도소에 계십니다  
신부님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사무실에서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성모 뭉소승천 대축일(15일) 미사  
오전 10시, 오후 8시
  2. 꼬미시음: 19일 오후 2시, 파티마 성당
  3. 파티마 청년회: 파티마 본당 청년회가 탄생했습니다  
회장-박수홍, 부회장-김인욱, 총무-서숙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51,360원